

어이켄의 宗教思想

저자미상

第一 어이켄氏의 小史

루쑈-푸 어이켄[루돌프 오이켄]氏는一千八百四十六년에 獨逸國 오-스도푸리-스란도[북부 아오리히]에서 呱呱의 聲를 舉호니 父君은 其 幼少時에 永訣호고 母堂의 手에 依호야 成長 되엿도다. 母堂은 엇던 敎人의 女이니 極히 宗教的 經驗에 豐厚호 人이러라. 大抵 어이켄氏가 現代哲學의 明星이 되여 其 名聲이 到處에 嘖々不己호는 原因은 其 哲學의 基礎는 宗教的 情操가 充滿호야 或은 宗教哲學이라 稱호에 至호니, 此는 其 幼時에 感化가 多大호 關係를 作호엿나니, 此는 其 母堂의 深厚호 信仰 卽 其 宗教的 氣分에 感化된 事는 勿論이라 兼호야 氏에게 가장 多호 感化를 與호 者는 其 高等學校時代에 師事호던 神學者 로이터氏가 其 人이라. 如此히 氏에게 圍繞호 空氣는 宗教的 氣味가 大호엿슴으로 不知不識間 宗教는 氏에게 興味를 深厚호게 호엿스며, 後來에 古典과 及 哲學을 研究호에 及호여 益々히 其 趣味가 深切호게 되여 一種信念을 形成호에 至호도다. 氏가 基督教從된 信仰의 告白과 如此 觀察호만호 「宗教의 眞理內容」이라 云호는 序文에 是如左히 言호를 見호리로다. 『宗教의 問題는 일즉이 幼時로부터 余에 意思를 衝動호엿스나 余는 敎會를 親호기도 不得호엿거던 하물며 敎職에 就호를 望호리오. 然호는 後來에 至호야 學問과 事業로써 余에 生涯와 職分을 作호 時는 宗教上 趣味를 全然히 驅逐코져 호야 勉勵호엿스나, 其 趣味를 除去호기 不能호며 余의 哲學上 努力에 際호여는 恒常 出現호를 不己호엿도다. 然호나 此時余는 自由의 確信을 有호 同時에 如何호 態度로써 基督教徒에게 對호가 余는 此에 就호야 告白을 公布코져호엿스나 人生의 經驗이 益々增加호에 從호야 此를 作爲호기 堅實호가. 又는 不小호 責任을 負擔호만호 時期가 到來호리라. 希望호는 故로 其 實行을 延期호엿노라. 然호나 今日은 其 決行호 時期가 到來호으로 覺知호노니 第一은 余自身에 對호이 何者오 余에 年이 漸々老大호리 何時까지 活動호기를 得

할가함이며, 第二는 時代에 對한 者이라. 何者오 今日은 彼爭論이 極度에 達
하였으므로 此에 對한 明瞭한 態度를 取하여야 할故이며, 余力을 盡하여 彼
爭論의 歸着한 目的을 說明한 義務가 有함이라. 故로 余는 드디어 沈默을 守
하기 不得하였도다』如此히 其 焰々한 噴火와 如하야 苦痛의 熱々한 自我의
衷曲을 告白하였도다.

氏は 月沈原大學 及 伯林大學에서 學을 修한서 當年 學界를 風靡한 것으로
에 氏は 月沈原大學의 哲學教授이요. 도런데 벨氏は 伯林大學에 教授라 實로
氏의 今日 光輝가 有한 聲名을 到處에 飛揚함은 其 原因이 此等 碩學을 師
事함에 胚胎함이라, 氏は 月沈原大學을 卒業하고 博士의 學位를 得한 后, 高
等學校에 敎鞭을 執한지 五年이며, 千八百七十一年에는 박-셀大學의 哲學敎
授로 任命되고, 千八百七十四년에는 에나大學의 當年學界의 權威가 有한
哲學史大家의 後를 繼하는 光榮을 得하였으며, 由來로 益々學界에 寵兒가 되
야 獨逸 各地 有名한 大學에서 招聘을 受하나, 此를 不應하며 依然이 其 發
祥의 에나大學에서 一貫하야 光明이 充滿한 講義를 繼續하여, 世界의 視聽을
一身에 集合하였도다. 氏의 著作은 現今 各國 方言으로 翻譯되고 氏를 師事
한人은 兩洋에 遍滿하야 到處에 氏를 敬慕함으로 東亞一隅에 處한 吾人도
오히려 其 芳名을 耳하야 仰止하는 懷를 不勝하였도다. 兼하야 氏에 家庭은
學生을爲 하야 開放하니 其 慈顏溫容은 一度此에 接한 者로 하여금 平生에
記憶케 한다함이라.

氏は 千九百八年에 文學名譽賞金을 授受하는 光榮을 得하고, 氏에 著書는
歐洲 五六國의 方言으로 翻譯되었나니라.

第二 宗教思想의 大概

宗教와 人生은 到底히 不可離한 關係가 有하도다. 原始人類에 在하여도 假
令 其 形式上 宗教의 依를 不着하며 宗教라 云하는 判然한 內容을 不備하
였으나 宗教의 素質은 만다시 其 裡面에 隱伏하였나니, 換言하면 吾人 人類
는 何等의 形式을 勿論하고 만다시 宗教는 有하다. 하되, 過言이 아니라. 然
則 其 形式이 偶像을 崇拜하던지, 自然을 崇拜하던지, 又는 此外에 在하던지
此는問할바가 아니며, 又는 宗教에 發生的原因이 驚愕에 在하던지, 又는 他에
在하던지 此도 問할 必要가 無하도다. 何如間 人生이 有한 處에는 만다시 宗
敎가 有한 것은 事實이라 肯定하리로다. 어이켄氏도 茲에 出發點을 置하야
感覺生活을 離하야 靈的 生活의 莊嚴함을 力說하였도다. 然하나 彼는 哲學의
批判 上에 入하야 冷靜히 言하되『宗教와 人生으로 하여금 密接한 關係에 置
코자할서 吾人 實際生活 又는 社會生活에는 關係하지 아니하나 一切 學術을
合有한 廣義의 人生에 關係함이라 然하 나 吾人은 人類生活 上에 超越하야

生活하기 不得하라 否하라 森羅萬象을 圍繞한 宇宙에 卓絶한 勢力되는 活動能을 吾人이 自覺하기 不得할가 否한가』如此한 疑問下에는 直時確實한 信念으로써 此를 肯定하였도다. 어이켄은 第一로 自己의 理性이 規範에 因牢됨을 苦痛해야 此를 闡明코자 하였나니, 彼の 宗教的生命은 茲에 在하도록다. 明決한 理性의 吡呼하는 千百疑問은 一度 宗教的 情操에 觸하면 釋然永鮮함에 至하도록다. 矛盾과 憶着은 다 熔解해야 宗教의 莊嚴과 威嚴과 權威를 認함에 至하였도다. 어이켄은 如此한 感覺生活을 超越해야 靈的生活을 肯定함이 如左히 言하였도다.

『吾人이 人生의 特有性에 就해야 詳細히 熟慮判斷할진디 日常生活에 現出해야 又는 埋伏된 狀態는 感覺生活 又는 感情生活이라 然하나 더욱 冷靜히 考察할진디 感覺生活과 根本的 相異해야 一種의 意味의 生活을 見得하리니 此는 即 靈的生活이라』하였도다. 又 此靈의 生活에는 說明을 加해야 曰『靈的生活은 文明의 進歩 即 個性의 文明化 進歩가 向上하면 此에 應한 靈的生活이 有치 안이치 못할지라 即 靈的生活과 個性의 文明化 程度는 相等率로써 高低함이라 또한 其 表現된 靈的生活은 반다시 何人이던지, 共通함을 得해야 其中에 在한 吾人은 客觀의 我 以外에 他人과 共通和協하는 力을 實現하는 者이라 如斯한 狀態에 在한 精神生活은 다만 肉體의 自己保存하는 手段될 뿐 아니라, 其 產出된 眞善美는 內心界에서 發生하리로다』하였도다.

如斯히 說明함에 當해야 彼는 自己가 使用하는 靈的生活과 精神生活이라 云하는 語句는 由來의 意味로써 滿足하다 하지 아니해야, 又는 其 誤解함을 避키爲해야『新히 創造』의 靈的生活이라 說하며 言하되 崇高한 靈的生活은 凡流의 到達키 難한 溝渠가 有해야 此等人에게는 創造의 範圍 外에 在하다. 唱破하였도다. 此 靈的生活은 一言으로 蔽할진디 宇宙森羅萬象으로부터 來하는 者이니 此階級에 至하리는 靈의 生活을 營할만한 素因과 可能性이 有한 奇拔한 人이나, 又는 眞장 純粹해야 無汚한 自然人이 生活의 進歩向上함을 從해야 到達하기 可得한 것이라 換言하면 어이켄의 思想은 何人에게던지, 向해야 靈的生活로 言함은 無理한 事이어서 特殊한 資格을 具備한 人이 안이면 不可하다 함이라, 오히려 彼는 言하되 靈의 生活을 營코자 할진디 剛健 又는 雄大한 神을 有치 안이면 不可해야 脆弱한 精神으로는 到底히 此崇高한 精神生活에 入하기 不得할 것이라. 故로 彼는『一層高한 勢力』又는 「全體(總體)로 된 勢力』이라 云하는 言을 用하였나니, 此 勢力은 即 是 個性을 發達케하며, 進歩케하며, 考察하며, 思索하며, 摸索의 境域을 脫해야 確實한 境域에 達함이라. 因해야 精神生活이 絶頂에 達하면 自我는 廣大한 森羅萬象의 一個附屬物이라 云하는 自覺과 深刻한 鑑謝의 情을 認識하지 안이키 不能한 것이

라. 實도 人生의 企圖하는 精神事業의 高所에 到達할수록 其 從事하는 自己를 回顧하되『一層嵩高한 勢力』에 對한 一個 參具에 不過함을 感得할지며, 於是에는 一種의 宗教를 喚起함에 至하리니 如此한 宗教로써 吾人은 萬有宗教라 稱하리오. 以上과 如히 彼の 思想을 見하면 彼는 最大한 一個 影子를 認해야 此에 慥々하며, 勇猛心を 振興해야 其 大理想의 影을 捕促하리라 하였도다. 彼는 絶對적으로 戰鬪의 將軍이 되야 驀進, 超越, 創造, 永遠, 深化 等の 名辭를 用해야 悲痛激烈의 內面을 有하였도다.

然하나 此 萬有宗教는 普通宗教라 言함과 相異해야 個性活動에 伴하여種々の 波動을 生하는 境域이 有하며 吾人이如此한 境界에 入해야 超越한 特性이 有한 宗教에 到達코져 할진디 妨害도 有하고 激動도 有하고 波亂도有할지라 然하나 此 表面의 障害가 有할수록 비로쇼 眞正한 精神生活에 入함을 得하리라하여, 痛熱히 叫號하였도다, 彼는 自家의 經驗을 語하되『外界에서는 ㄴ장 頑強한 抵抗을 受할지나 然하나 自己 精神 內에서도 또한 然한도다』하였시며』又 曰『如此한 障害는 多大한 勢力이 有해야 一切의 生活과 努力을 杜絶케하는 患이 有한도다』告白하였스며, 又是 語勢를 轉하여 言하되『然하나 事實도는 如斯한 防害에 依하여 生活은 防止되지 안이한다』하였도다. 卽 此 世紛々한 俗事에 超越하여 神靈上關係를 發展한 時는 此에 特殊한 宗教를 喚起하리니 如斯한 發展으로써 極度에 達하면 人生의 自我는 完全生活을 營함에 至함이라.

神人 全一은 宗教 基礎의 眞理이니 그 ㄴ장 深刻하여 神秘한 神靈이 隱蔽함이 無해야 光明을 示하며 人生의 方向을 指示함이라. 故로 此 靈的生活에 達하면 同時에 其 生活은 全然히 新鮮하게 되며, 高雅하게되며, 人生은 無限으로부터 永久의 影子가 自己內在界에 潛在함을 認해야 宇宙에 超越함을 覺하며 비로쇼 上帝의 愛가 人生生活의 主되는 機因을 造하며, 根底로부터 不可離의 關係를 結함에 至함이라. 然하나 吾人이 만일 靈的生活에 入함으로써 特殊한 宗教라 標榜하며, 特殊한 信仰心を 自負해야 自己를 自高해야 慢心を 起한즉 卽時 偏狹頑固에 囚奴가 되야 僞宗教, 僞信仰을 形成함에 至함도 有하리로다.

大抵 宗教가 만일 스스로 觀念界를 形成치 못하여 又是 新生活의 形態로써 表現함을 不見할진디 이는 宗教의 權威로써 歷史的勢力을 作해야 果然 人生을 綜合하기 不可能하리로다. 如斯히 歷史적으로 宗教中에 流行한 敎理와 敎儀는 靈的生活에 段階를 表할而已요. 何等의 價値가 無하리니 故로 吾人을 恒常 其 本源을 忘却하지 안이 하기로 努力하니 警戒할 것이라. 만일 不然하면 生命을 變해야 一塊死物을 致하리로다.(未完)